

『우리만의 편의점 레시피』

범유진 지음 | 192쪽 | 2021년 4월 | 탐

#편견과_상처 #왕따와_배신

#이서우_찾기

#내인생의_음식

#같은맛을_나누는시간

#편의점_알바 #편의점_레시피대회

도서 소개

편의점은 청소년들에게 아지트 같은 공간이다. 학교와 학원을 바빠 오가며 친구들과 간편하게 요기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늦은 시각까지 켜져 있는 환한 불빛은 심리적 안정감까지 주는 곳이다. 이 작품 속의 편의점에서는 마법 같은 편의점 레시피가 펼쳐지는 공간이다. 책 속 인물들은 모두 각자의 삶의 무게와 아픔을 견디며 사는 사람들이다. 엄마와 영원한 이별을 한 주인공 루다, 아내를 잃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일에만 몰두하는 아빠,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하는 아이들, 편견과 아집으로 뿔뿔 뭉친 학부 쌤, 미용 특성화고에 진학해서 아빠와 관계가 틀어진 학부 쌤의 아들 서우,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어버리고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는 아이의 엄마, 학교 폭력으로 왕따를 당한 친구 등 저마다의 진한 아픔이 배여 있다.

이들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니, 바로 ‘아름 편의점’이다. 시장 안 주변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아도 아름답 편의점을 곳곳이 지키는 할아버지는 특별한 한 사람을 찾기 위해 루다와 함께 ‘편의점 레시피 대회’를 열고, 결국 그 사람을 찾게 된다. 이 대회를 통해 작품 속 인물들은 각자의 사연이 담긴 음식을 만들고 나누면서 오랫동안 숨겨 둔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고 치유한다.

편의점 레시피 대회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상처 입은 사람들이 편의점이라는 공간에서 서로를 보듬고 격려하는 따뜻한 이야기와 반전이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독자들을 몰입하게 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의미 있는 작품이다.

활동의 중점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의 세 단계로 나누어 활동하면서 편의점에 대한 경험이나 생각을 떠올려 보고, 주인공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물들에 대한 탐구를 통해 작품 속 인물들이 가진 각각의 사연들을 되짚어 보면서 작품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본다. 그리고 등장인물 중 편견으로 상처 주고, 받는 것을 통해서 ‘내 안의 편견’도 들여다보고, ‘멋진 어른’의 모습도 주위에서 찾아보는 활동을 제시한다. 작품의 내용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서 확대된 질문을 생각하고, 서로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책 읽기는 결코 혼자 완성할 수 없고, 같은 책을 읽은 친구들과 나눔과 확대를 통해 독서가 완성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활동의 흐름]

👤 선생님들을 위한 활용의 팁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에 제시된 활동이나 차시의 구분은 각 상황에 맞게 선택 또는 변형하여 활용 가능하며, 각 단계의 활동을 선생님들의 의도에 맞게 재배열해도 무방합니다. 제시된 활동들은 혼자 읽기보다는 함께 읽고 나누기 위한 아이디어의 제시이며, 질문이나 활동에 덧붙여진 예시 또한 본래의 의도를 보다 더 잘 전달하기 위한 내용임을 밝혀둡니다.

단계	활동 안내
읽기 전 <1차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❶ 나의 손으로 편의점에 대한 생각 표현하기 ❷ 평소 나의 생각 떠올려보기 ❸ 나에게 특별한 음식은?
독서 일기 <2차시~4차시>	독자들의 역량과 상황에 따라 온전히 한 권 읽기를 위한 과정에서 활용
읽는 중 <5차시~7차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❶ 등장 인물 탐구하기 ❷ 등장 인물의 변화와 깨달음 파악하기 ❸ 등장 인물에게 편의점의 의미 부여하기 ❹ 등장 인물을 음식에 빗대어 보면? ❺ 등장 인물의 편견을 찾고, 나의 경험과 연결하기 ❻ 주인공의 입장에서 편지쓰기 ❼ 등장 인물 소개와 주위의 경험 찾기 ❽ 작품의 마지막 장면 그림으로 표현하기 ❾ 나만의 레시피 소개하기
읽은 후 <8차시~9차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❶ 나의 부모님과 연결하기 ❷ 후회되는 나의 과거 경험 떠올리기 ❸ 질문 만들기 ❹ 월드카페 토론하기 ❺ 친구와 함께 3행시, 6행시 쓰기
한 걸음 더 <10차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❶ 가족 인터뷰 하기 ❷ '편견'을 다룬 작품을 찾고, 친구와 생각 나누기 ❸ '음식에 관한 경험(추억)' 나누기 ❹ '왕따의 책임'에 대해 생각 나누기 ❺ 도서관으로~ 더 읽을 자료(시)를 찾아 읽고,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 생각 나누기

① 1차시 [읽기 전]

Q1. 편의점을 나의 손으로 표현하고, 친구들과 공유해 봅시다.

활동 방법

- ① 아래 빈칸에 손바닥을 대고 손가락을 최대한 펼쳐서 손 모양을 따라 그려 주세요.
- ② 손바닥 안에는 '나에게 편의점이란 ()다.'를 쓰고 이유를 적어 주세요.
- ③ 손가락 끝부분마다 자신이 즐겨 먹는 편의점 음식 5가지를 그림으로 그려 주세요.
- ④ 손가락 길이의 빈 공간에는 편의점의 좋은 점을 5가지 써주세요.

🍷 선생님들을 위한 활용의 팁

위 활동은 '비주얼 싱킹'을 활동 방법을 바탕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수업하시는 선생님의 아이디어에 따라 손바닥과 손가락에 적는 내용을 다르게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Q2. 평일 낮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교복을 입고 일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까요?

👤 선생님들을 위한 활용의 팁

일상에서 종종 마주칠 수 있는 장면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작품을 다 읽은 후, 주인공과 관련지어 해당 질문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Q3. 나에게 특별한 음식은 무엇인가? 친구들의 특별한 음식 이야기도 들어봅시다.

👤 선생님들을 위한 활용의 팁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 중 각자의 이유로 특별한 음식에 담긴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어 보도록 하세요.

(예) 주인공에게 '슈크림 빵'은 특별한 음식이다. 엄마를 떠올리게 하고, 엄마를 잊지 않게 하는 음식이기 때문이다.

- 나의 이야기

- 친구의 이야기

① 2차시~4차시 [독서 일기]

👤 선생님들을 위한 활용의 팁

- ①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나누어 읽는 경우 활용하면 됩니다. 또한 책을 읽는 것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건과 갈등, 인물의 심리, 표현 등에 머물면서 천천히 읽는 과정의 의미를 설명하고 독서 일기 활동을 수행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 ② 독서 일기 양식은 실제 활동에서 필요한 횟수만큼 활용하시면 됩니다.

월 일	오늘 내가 읽은 쪽:
① 마음에 와 닿은 구절 ② 읽으면서 궁금한 점 ③ 나와 연결되는 내용 ④ 그 외 자유로운 생각이나 상상 * 위 내용을 2가지 이상 포함하여 독서 일기를 작성해 봅시다.	-----

월 일	오늘 내가 읽은 쪽:
① 마음에 와 닿은 구절 ② 읽으면서 궁금한 점 ③ 나와 연결되는 내용 ④ 그 외 자유로운 생각이나 상상 * 위 내용을 2가지 이상 포함하여 독서 일기를 작성해 봅시다.	-----

월 일	오늘 내가 읽은 쪽:
① 마음에 와 닿은 구절 ② 읽으면서 궁금한 점 ③ 나와 연결되는 내용 ④ 그 외 자유로운 생각이나 상상 * 위 내용을 2가지 이상 포함하여 독서 일기를 작성해 봅시다.	-----

① 5차시~7차시 [읽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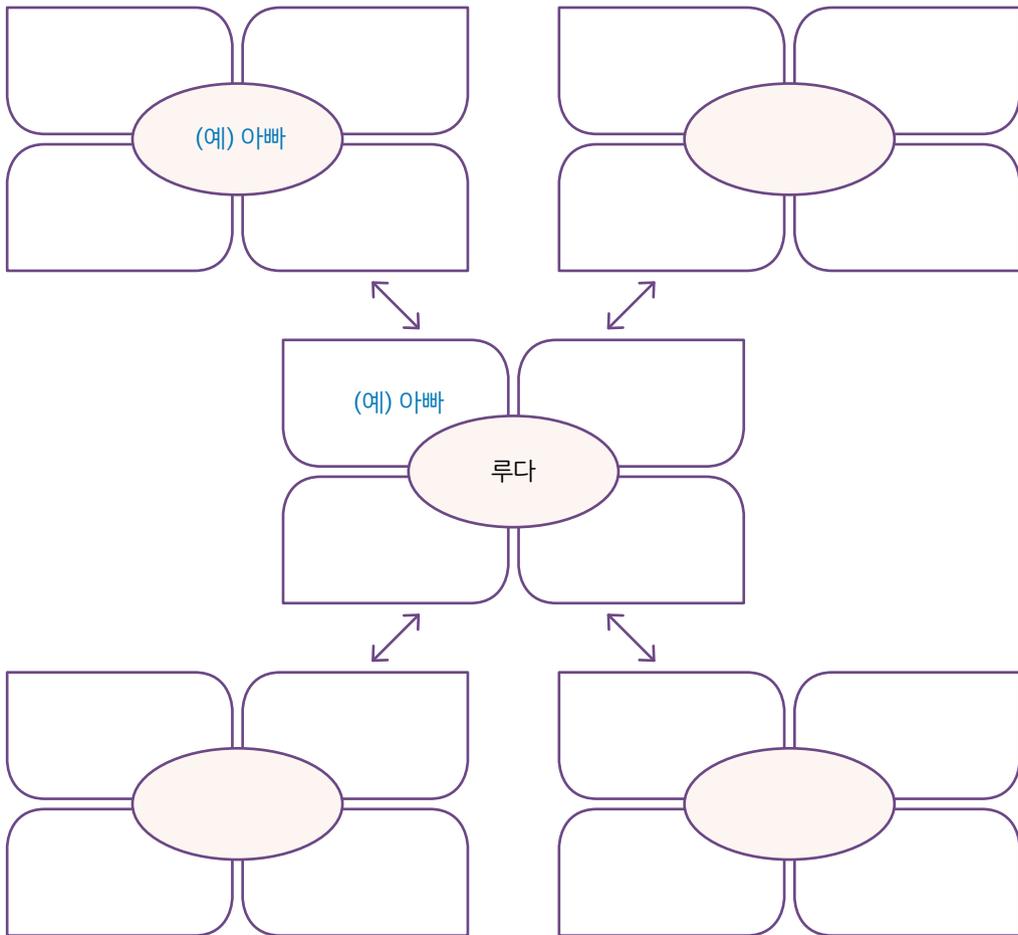
Q1. 주인공 '루다'가 만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채우고, 친구들과 공유해 봅시다.

활동 방법

- ❶ 주인공(루다)을 중심으로, 주인공에게 의미 있는 인물 4명을 적습니다.
- ❷ 1번에서 정한 4명의 인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4가지로 정리합니다.
- ❸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선택한 인물, 인물에 대해 정리한 정보 등을 비교하며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 선생님들을 위한 활용의 립

주인공 루다가 만난 여러 사람들 중 각자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인물을 4명 고르고, 해당 인물을 고른 이유를 먼저 공유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Q2. 루다가 각각의 이서우를 만난 뒤, 겪은 변화나 깨달음은 무엇인가요?

선생님들을 위한 활용의 팁

주인공 루다가 편의점에서 4명의 이서우를 찾고 만나는 과정은 성장과 치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생들이 어려워한다면 짝이나 모둠을 만들어서 함께 활동해 보도록 하세요.

만난 인물	루다의 변화, 깨달음(인물에게서 배운 점)
첫 번째 이서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두 번째 이서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세 번째 이서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그동안 드러내지 않았던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입 밖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용기가 생김. • (예) 도희 역시 자신의 엄마에게 연락해볼 용기를 얻음. • •
진짜 이서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Q3. 등장인물들에게 ‘아름 편의점’은 각각 어떤 의미인지 적어 봅시다.(주인공 외 1명 이상) 작품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서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도 좋습니다.

👤 선생님들을 위한 활용의 팁

해당 활동은 등장인물들에 대한 이해를 위한 활동입니다. 각 등장인물들을 비유한 표현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를 넓혀 볼 수 있습니다. 작품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찾은 학생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다 함께 다시 읽어 보는 것도 작품을 새롭게 보는 기회가 됩니다.

내가 선택한 인물	선택한 인물에게 ‘편의점’이 갖는 의미
(예) 서우 아줌마	해우소이다. 왜냐하면 마음 속 묵혀둔 이야기를 꺼낼 수 있고, 들어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Q4. 등장인물을 ‘음식’에 빗대어 표현해 봅시다.

👤 선생님들을 위한 활용의 팁

이번 질문은 위 3번 질문과 의도가 유사합니다. 활동하시는 선생님께서 더욱 적절한 질문을 선택하셔서 활용하시거나,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어 활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예) 편의점 할아버지는 ‘김치’다. 왜냐하면 김치는 밥 먹을 때 꼭 생각나고 필요한 것처럼, 할아버지는 모든 인물에게 심리적 안정감이나 관계 정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 때문이다.
-
-

Q5. 작품 속에서 학부썸은 ‘편견을 정의라고 믿는 사람’, ‘편견의 샌드위치’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학부썸이 가진 편견이나 선입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상처받고 힘들어 하지요. 혹시 나에게도 학부썸처럼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지는 않을까요? 또는 주의의 편견이나 선입견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은 없었나요?

👤 선생님들을 위한 활용의 팁

등장인물 중 학부썸을 통해 우리는 ‘편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작품의 내용을 살피되, 더욱 중요한 것은 ‘나의 편견’, ‘우리의 편견’에 대해 생각해 보는 방향으로 활동으로 펼쳐주시면 됩니다.

학부썸이 가진 편견	상처받은 사람 (학부썸 의견과 다른 사람, 불만이 있는 사람)
• (예) 심터에 있기 때문에 담배를 폈다고 몰아감	루다
• (예) 편의점에서 파는 것들은 칼로리만 높고 영양가가 하나도 없다.	서우(학부썸 아들)
• (예) 편의점 같은 데서 밥을 먹으니까 애들이 었나간다.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던 학생들
•	
•	
•	

내가 가진 편견	내가 경험한 편견
•	•
•	•

Q6. 처음에는 열어 보지 못했던 아빠의 편지를 뒤늦게 읽게 된 루다는 그때까지 미처 깨닫지 못한 아빠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루다의 입장이 되어 전하지 못한 진심을 담아 아빠에게 답장을 써 봅시다.

👤 선생님들을 위한 활용의 팁

주인공 루다는 꽤 여러 날을 망설이다가 아빠의 편지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편지 속에는 그동안 말하지 못한 아빠의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루다 역시 아빠게 말로는 표현하지 못한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서운했던 점까지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빠에게
아빠 딸 루다가

Q7. 작품 속 할아버지가 멋지다고 느낀 부분을 소개하고, 실제 내 주변에서 멋진 어른이라고 느낀 분이 있다면 소개해 봅시다.

👤 선생님들을 위한 활용의 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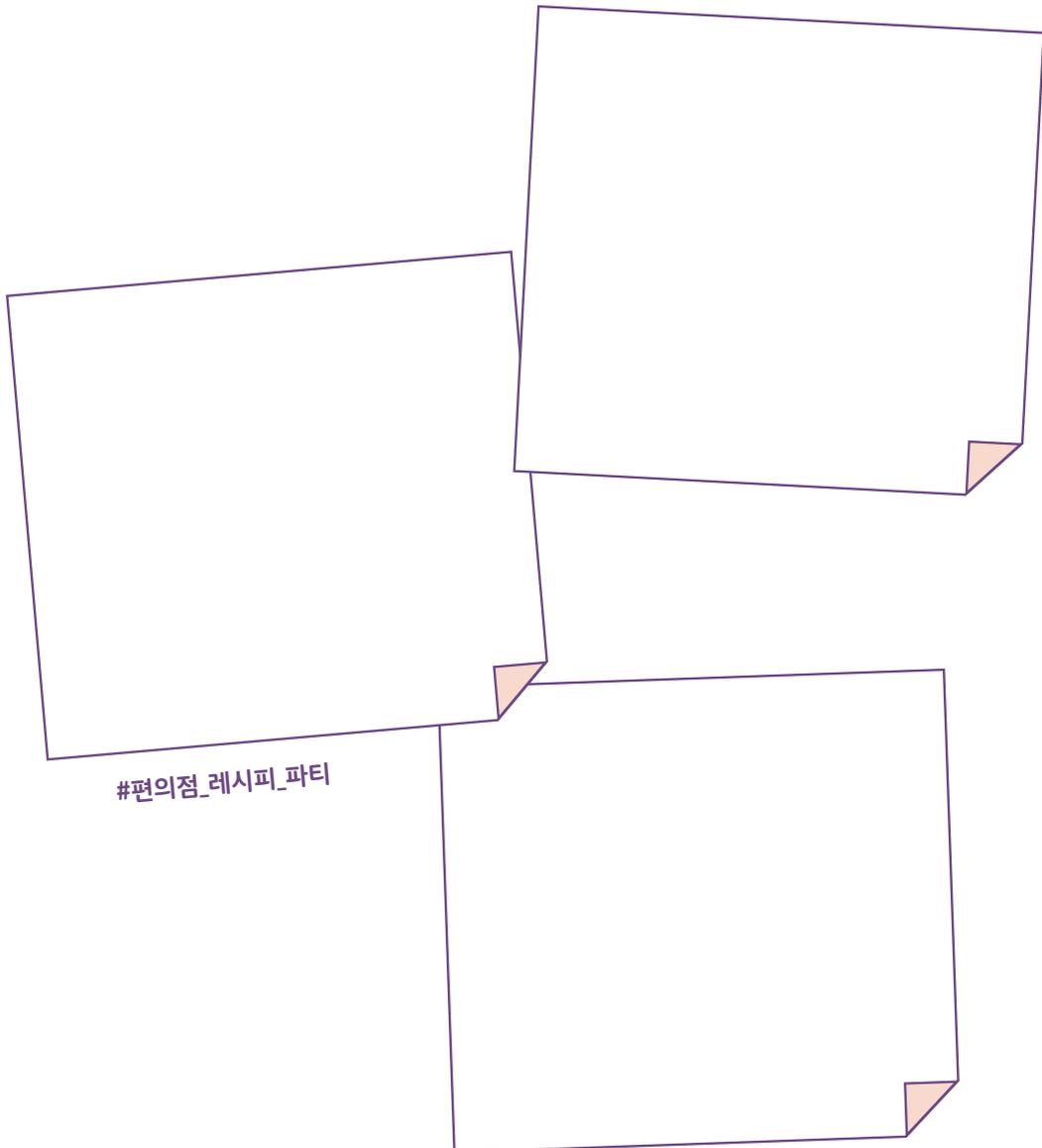
'멘토' 또는 '어른다운 어른'을 너무 멀리서 찾지 말고, 학생들이 자신의 주위, 평범한 일상에서 떠올려 보도록 하면 주위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멋지다고 느낀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남자들이 담배를 사러 편의점에 왔다가 루다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보고 사과하라고 말했을 때 •
주위의 멋진 어른 소개하기 -주변의 경험이나 뉴스나 기사를 검색해봅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Q8. 작품의 마지막의 '편의점 레시피 파티'의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다고 상상해 보고,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선생님들을 위한 활용의 팁**

학생들 각자가 주목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그려 보거나, 또는 인물과 관련된 레시피의 음식도 함께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레시피 파티는 작품의 갈등이 풀리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또 다른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므로 학생들의 상상력에 맡겨 보세요.



Q9. 작품 속에 나온 ‘편의점 레시피 파티’에 초대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만들 건가요?
편의점 음식으로 만드는 ‘나만의 레시피’를 소개해 봅시다.

 **선생님들을 위한 활용의 팁**

위 질문 중 나에게 특별한 음식과 관련 지어 해당 질문의 활동을 이어 나가거나, 아직 만들어 보지는 않았지만 레시피를 상상하여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168쪽>

우리만의 레시피 파티를 엽니다.

하루동안 ‘아름 편의점’은 파티장이 됩니다. 이 초대장을 받으신 분들은 각자가 편의점 음식으로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생각해 와 주세요. 오셔서, 그 음식을 만들어 주세요. 그 음식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꼭 오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 음식에 담긴 이야기:

• 요리 이름:

• 레시피

①

②

③

④

⑤

① 8차시~9차시 [읽은 후]

Q1. 여러분도 주인공 루다처럼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경험이 있나요? 또는 부모님의 새로운 모습으로 살짝 놀랐던 적이 있나요?

👤 선생님들을 위한 활용의 립

해당 질문은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하므로 조금 부담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유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면 이번 기회에 질문의 내용을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입니다.

'나, 아빠에 대해 모르는구나'

아빠가 이런 낮간지러운 편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아빠의 어린 시절을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아빠의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다. 그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빨리 돌아가셨구나, 정도로 알고 있었을 뿐이었다.

정말로 몰랐다. 아빠도 무서워할 수 있다는 것도.

-
-

Q2. 지나온 시간 중에 자신이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해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고, 지금 다시 그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할지 말해 봅시다.

 **선생님들을 위한 활용의 팁**

이번 질문에서 학생들이 결과만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잘못이나 실패의 경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결과 중심의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도 좋지만 처음의 의도, 과정의 노력도 중요하므로 생활의 다양한 장면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떠올려 보도록 안내하세요.

132쪽

‘하지 못한 것에는 미련이 남는다. 결국 엄마와 나, 아빠 셋이 함께 슈크림빵을 먹지 못했던 것이 내내 후회되듯이.’

• 어떤 상황이었나요?

• 다시 기회가 온다면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Q3. 마지막 책장을 덮은 지금, 떠오른 생각이 있나요? 사소한 부분의 질문, 다소 엉뚱한 상상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경계선 없는 생각을 응원합니다. 떠올린 질문에 대해 친구와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 선생님들을 위한 활용의 팁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제시한 질문으로만 활동이 전개되었다면, 이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질문을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작품의 내용, 삶과 연결되는 부분 등에서 질문을 떠올리고, 질문 생성의 이유도 함께 고민하게 한다면 더욱 괜찮은 질문이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질문1	
궁금한 이유	
내가 만든 질문2	
궁금한 이유	
내가 만든 질문3	
궁금한 이유	
질문 나눔 & 친구와 공유	

Q4. 위 3번에서 만든 질문을 확장시켜 토론 논제를 만들고, 월드카페 방식으로 토론해 봅시다.

👤 선생님들을 위한 활용의 팁

- 1 위 활동을 위해 큰 종이(4절지 이상), 여러 가지 색의 네임펜이 필요합니다.
- 2 활동 방법의 경우 설명으로 이해가 부족하다면 영상(아래 유튜브 주소)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WExFMjFeaU>
- 3 만들어진 질문을 함께 고민해보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함께 고민해볼만한 질문과 해당 질문에 대한 생각도 확장하고 연결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활동 방법

월드 카페 토론 방식

- 1 모둠 주제 소개. 토론 방식의 안내를 통해 참가자들이 원하는 주제 테이블로 이동합니다.
- 간단한 자기소개
- 2 각 주제 테이블의 주인(호스트) 만나기 안내합니다.
- 3 테이블 이동이 완료되면, 각 주제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합니다.
- 자유 토론은 1회당 15분씩 하여 2회 실시
- 4 테이블 위의 종이에 메모하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이 한 메모에 의견을 달거나 연결선들을 그려 볼 수도 있습니다.
- 5 1차 대화가 끝나면 참가자들은 다른 테이블로 이동합니다. 테이블 이동이 완료되면 테이블 호스트는 (대화 주제나 새로운 설명을 게시)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하고, 앞선 테이블에서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짧막하게 2~3분 정도 내에서 소개합니다. 앞선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 소개가 끝나면 다시 대화를 이어 갑니다.
- 6 2~3차 대화가 끝나면 참가자들은 다른 테이블로 이동합니다. 1차와 동일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7 자유 토론의 결과 도출한 질문 혹은 완성된 문장을 화면으로 발표합니다.



모듬의 토론 주제	
모듬 대표 질문	
질문의 답 탐구	

Q5. 작품을 소개하거나 평가하는 내용으로 3행시 또는 6행시를 지어 봅시다.

 **선생님들을 위한 활용의 립**

- ① 학생들 각자기 3행시와 6행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 ② 또는 각자 3행시를 완성하고, 3행시를 바탕으로 짝과 함께 6행시를 완성해볼 수 있습니다.

편	
의	
점	
레	
시	
피	
편	
의	
점	
레	
시	
피	

① 10차시 [한 걸음 더- 더 읽기 자료]

Q1. 또래 친구들과의 소통은 신나지만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과는 갈수록 말수가 적어지는 청소년기, 나는 부모님이나 가족에 대해 나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 가족 중 1명을 선택하여 10문 10답으로 소통의 시간을 가져 봅시다.

활동 방법

10문 10답

- ① 가족 중 1명을 인터뷰 대상으로 정합니다.
- ② 선택한 가족과 인터뷰하기 전에, 내가 질문을 정하고 인터뷰 대상을 떠올리며 질문에 대한 답을 적습니다.
- ③ 10문 10답의 스스로 활동이 끝난 후, 실제 인터뷰를 통해 나의 답과 비교해 봅니다.
- ④ 인터뷰 대상의 답과 일치하는 경우 각 문항 당 10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나의 점수를 합산해 봅니다.

👤 선생님들을 위한 활용의 팁

요즘에는 가족의 구성이 다양하므로 '부모님'으로 한정하지 않고, '가족'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지만, '가족'이라는 범위 역시 조심스러울 수 있으므로 학교나 학생들의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내가 선택한 인터뷰 대상은 가족 중 누구인가요?

번호	나의 질문	나의 답	인터뷰 대상에게 확인(점수)
Q1.	(예)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일치 / 불일치
Q2.	(예) 발사이즈는?		일치 / 불일치
Q3.			일치 / 불일치
Q4.			일치 / 불일치
Q5.			일치 / 불일치
Q6.			일치 / 불일치

Q7.			일치 / 불일치
Q8.			일치 / 불일치
Q9.			일치 / 불일치
Q10.			일치 / 불일치

나의 점수는?	
90점~100점	당신은 가족 이해의 달인입니다.
50점~80점	조금 더 가족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40점	가족과의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군요. 오늘 저녁은 꼭 가족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식사하세요.

Q2. 이 작품에는 다양한 편견의 모습이 나옵니다. 루다는 쉼터에 머문다는 이유로 학부생에게 담배를 피웠을 거라 오해받고, 서우는 남자가 미용고를 다닌다는 이유로 아버지로부터 외면받으며, 현진 언니는 쉼터에서 산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도둑으로 몰리기도 합니다. '편견'을 주제로 한 대중가요나 시, 영화, 드라마를 찾아서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 봅시다.

선생님들을 위한 활용의 팁

'편견'을 주제로 한 대중가요는 이적의 <왼손잡이>, 시는 정일근의 <오른손잡이의 슬픔>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며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것도 활용해 보세요.

• 내가 찾은 작품(노래, 시, 영화, 드라마 등)

•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편견에 대한 나의 생각은?

Q3. 음식은 단지 내 몸의 영양소 역할뿐만 아니라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고, 치유와 재생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음식으로 위안이나 치유를 받은 경험, 나의 기억에 남아 있는 특별한 음식, 우리 가족에 얽힌 추억의 음식 중 관련 있는 것을 선택해 소개해 봅시다.

👤 선생님들을 위한 활용의 팁

- ① <돌맹이국>(존 무스 글, 그림)이라는 그림책을 먼저 선생님께서 소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림책을 활용하실 때는 실제 그림책을 보며 학생들과 함께 읽는 것을 권합니다.
- ② 또는 그림책을 읽어 주는 영상(아래 유튜브 주소)을 공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QNynC1nAEo>

• 나의 이야기

Q4. 루다와 올이의 관계를 떠올리며 다음 글을 읽어 봅시다. 과연 왕따는 왕따를 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왕따를 당한 학생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다음 글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

👤 선생님들을 위한 활용의 팁

왕따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 고민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기회에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참고로 <1등에게 박수치는 게 왜 놀랄 일인가?>(오찬호 글)의 <왕따를 당하는 아이에게도 책임이 있다고?>부분을 학생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도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5. 작품 속의 루다, 도희, 현진 언니처럼 쉼터에서 생활하거나 학교 밖 아이들의 상황을 표현한 시를 찾아서 친구들에게 소개해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 선생님들을 위한 활용의 팁

질문에서 언급하는 주제를 다룬 시는 김애란의 <생각해 봤을까요?>와 <팬스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찾기 어려웠다면 선생님께서 한 편 소개해 주세요.

• 내가 찾은 한 편의 시